

# 넥센타이어, '유럽 R&D 센터' 신축 확장 이전

## 독일 내 R&D 센터 및 영업부문 통합으로 유럽시장 경쟁력 강화 체코 신공장과 시너지 효과 기대, 유럽시장 공략 가속화



넥센타이어 유럽 R&D 센터 전경

나간다는 계획이다.

넥센타이어 강호찬 사장은 "이번 유럽 R&D 센터의 신축 확장과 함께 체코 공장이 시험가동에 들어간 만큼 당사의 유럽 내에서 경쟁력은 한층 강화될 것"이라며 "향후 유럽시장의 고객과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"고 밝혔다.

### 미국 중앙연구소

넥센타이어는 미국 중앙연구소가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.

미국 중앙연구소는 지하 2층, 지상 8층, 연면적 57,146㎡ 규모로, 2019년 상반기 서울 강서구 마곡산업단지에 완공된다.

OE/RE 제품 설계를 비롯해 예측/Simulation과 기초 응용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개발센터, 성능연구센터, 재료연구센터로 구성된다.

미국 중앙연구소는 한국의 양산기술연구소 및 창녕기술연구소, 독일의 유럽기술연구소, 체코기술연구소, 미국기술연구소, 중국기술연구소 등 국내외 6개의 연구소를 통합 관리하는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. ●

넥센타이어는 2018년 9월 독일 내 별도로 있던 유럽 R&D 센터와 영업·마케팅 사업부를 통합해 확장 이전했다고 밝혔다.

이번에 새로 준공한 유럽 R&D 센터는 유럽시장 공략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.

넥센타이어는 자동차 본고장인 유럽시장에서 프리미엄 완성차 업체를 포함한 자동차 제조사들과 유럽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적기에 파악해 현지 대응력을 높여나가기로 했다.

이 센터는 타이어 패턴에서 영감을 얻은 독특한 디자인과 회사의 대표 컬러인 퍼플색으로 포인트를 준 것이 특징이다.

센터에는 사무실과 기술센터 외에 고객을 위한 공간도 마련돼 있어 방문객들이 한 곳에서 넥센타이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.

현재 연구원을 포함한 8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추후 현지 상황에 맞춰 우수 인력을 확보해



넥센타이어 미국중앙연구소 조감도